

문화특리

김제시, 벼 종자소독기 공급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농가의 주소독 원인 김제쌀 산업을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육성하기 위해 최근 들어 발생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벼 카디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기 101대를 공급한다.

못자리 설치 시기를 앞두고 벼 카디리병을 예방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억6천백만원(국비 50%, 시비 10%, 지방채 40%)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1대의 종자소독기를 공급 할 계획이다.

벼 카디리병 발병 시기는 어린묘에서부터 벼가 익을 때까지 전 생육기간에 나타나며, 발병면적 또한 매년 늘어나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벼 카디리병은 건전한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금년에도 벼 카디리병 사전예방을 위한 종자소독기 겸 자동별제발아기 보급, 농가 및 현장 중심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력 대체와 농가 소득증대와 고품질쌀 생산에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자

부안군, 외식업소 위생교육

부안군은 16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외식업소 3無(불친절·비가지요금·원산지 미표시)운동 확산을 위한 한미음 결의식과 함께 오는 5월 열리는 제1회 부안 마실축제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외식업소 친절·정결·서비스 향상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점홍 부안군 부군수와 부안군 외식업소 경영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외식업소 경영주들은 3無 운동 확산 한미음 결의식에서 2016년을 외식업소의 불친절·비가지요금·원산지 미표시가 없는 3無의 해로 삼겠다고 한미음으로 결의하고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여는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 변신본도회장이 외식업중앙회장 표창을 받는 등 6개 외식업소 경영주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제 제4회 부안비밀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외식업소 식중독예방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이 실시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정읍시는 신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8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옥외광고협회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교통과 보행에 방해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광고물)를 비롯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등을 단속·계도하고 있다.

노후 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광고 수단과 음란 전단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림지구대 음주운전 합동단속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역경찰·자율방범대원 20명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 운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서림지구대는 협력차안활동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함께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예방 음주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진행했다.

강종삼 지구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단련자의 술을 마셨을 경우라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해외관광객 유치 세일즈콜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의 협조와 하나투어 일본지사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제시, 해외관광객 유치노력

지평선축제의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위해 세일즈콜 행사 개최

전국 최초! 4년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가 축제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관광객 유치 세일즈콜에 나섰다.

2016년 3월 15일 ~ 18일까지 개최된 『해외관광객 유치 세일즈콜』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의 협조와 하나투어 일본지사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여행업계 세일즈콜, 해외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다양한 유치전략을 마련하였다.

지난 2015년 김제시는 한국관광공사 및 하나투어 일본지사와 연계하여 지평선축제가 기간 중 일본, 중국, 동남아권 관광객 340여명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축제를 관람하는 등 관광여행상품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어 올해에도 충분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16일 진행된 해외관광객 유치 업무협약에서 김제시 김주식 문화홍보축제실장과 (주)하나투어 재팬 토미오

카 마사코리 본부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기간 중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적극 노력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김제시에 따르면 "대표축제 명에 붙여 글로벌 브랜드로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권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하여 세계가 찾는 지평선축제,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자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재정조기집행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집중하고 있다.

부안군은 16일 노점홍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보고회에는 재정 조기집행 평균 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9개 실과소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자체적으로 부진사

유를 분석해 대책을 모색하고 3월 말까지 주(週)단위 조기집행 계획을 설정해 추진기로 했다. 또 17일에는 읍면장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안군은 이를 통해 3월 말까지 재정 조기집행 대상액(2635억원)의 2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 예산액의 25% 이상을 3월 내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노점홍 부안군 부군수는 "재정 조기집행 대상액의 25%를 3월 말까지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 모두가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여성발전위, 3개단체 여성발전기금 1180만원 지원

정읍여성발전위원회(위원장 양심복부시장)는 지난 16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도 여성발전

기금 지원사업 평가보고와 함께 2016년도 지원사업을 심의,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에 1천1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여성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여성발전기금이 자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양심복위원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여성단체와 참여단체가 사업수행 역량 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관내 향교 봄철 석전대제

김제·만경·금구 3개소에서 300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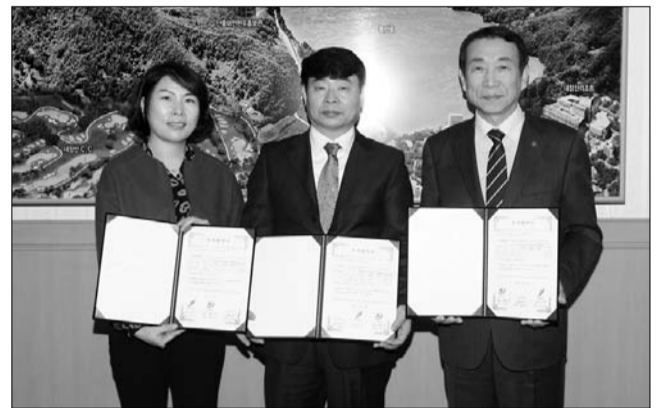
김제시 관내 김제향교(전교 박창규), 만경향교(전교 강민석), 금구향교(전교 남병열) 각 3개소에서 춘기 석전대제가 16일 오전 각 향교별로 이진식 시장, 정성주 의장, 향교유림, 유관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거행됐다.

석전대제(釋奠大祭)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위시한 27현(동양 5성, 송조 4현, 동국 18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며, 18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두차례 음력 2월

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을 택해 봉행된다.

석전대제는 법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약해지는 지금 성현들이 전하는 소중한 가치인 충·효·예 사상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의미 있는 행사이며,

각 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 시자인 공자를 위시한 27현(동양 5성, 송조 4현, 동국 18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며, 18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두차례 음력 2월



정읍농수농공단지에서 정읍농수농공단지에서 정읍농수농공단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연 매출 100억원 이상, 50명의 고용인원 창출이 기대된다.

정읍농수농공단지에 60억원 투자

정읍시-도우성섬유 협약 체결

정읍시와 전라북도(도우성섬유는 16일 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생기 시장과 전북도청 유희숙 경제산업국장, 권기환 (도우성섬유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정읍농수농공단지 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도우성섬유는 극세사 장갑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산업용 장갑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매출 100억원 이상, 50명의 고용인원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정읍 제2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국일방직의 원사를 사용하여 장갑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지역 내 기업

과의 서로 윈윈하는 상생발전도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김생기시장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농수농공단지 입주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읍에 투자를 결정해 준 (도우성섬유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수섬유가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하여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우성섬유는 2005년 한우섬유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2009년 8월에 베트남에 진출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에서의 투자 메리트(mait)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beer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 Premium Obhi Wine'.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sanmyeongju.